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

김선희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



연구책임

김선희 사회복지실천융합연구소 대표

연구진

박재홍 사회복지실천융합연구소 연구원

김규미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연구 문제	4
02. 선행연구 고찰	5
1_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	5
2_코로나19 전·후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7
03. 연구 방법	10
1_혼합적 연구방법	10
2_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1
3_자료수집	12
4_자료분석	12
5_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14
04. 분석 결과	15
1_연구 참여자의 특성	15
2_주제 분석 결과	16
05. 결론 및 정책 제언	40
1_연구 결과의 요약	40
2_연구의 함의	44
3_교육복지 정책 제언	46
참고문헌	53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15
[표 2] 주제 분석 결과	41



그림 목차

[그림 1] 장애 대학생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8
[그림 2] 코로나19 이후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	9
[그림 3] 혼합적 연구 방법 수행 절차	10
[그림 4] 말 강요, 듣기 강요	17
[그림 5] 소외	19
[그림 6] 외국어 전문 속기사가 없어서	23
[그림 7] 자동 번역APP 작동 오류	24
[그림 8] 무슨 말?	24
[그림 9] 공지를 전화로 하면 어떻게 해	25
[그림 10] 줌에서 모름이 많아짐	28
[그림 11] 문제가 뭘까? 누가 문제일까?	29
[그림 12] 학업 의지가 꺾임	30
[그림 13] PPT와 속기가 불일치	31
[그림 14] 기대 + 실망	35
[그림 15] 과제가 소속감 대변함	36
[그림 16] 나태, 잠만보	36
[그림 17]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	37

01. 서론

1_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3년간 장애 학생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비롯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18년 15.4%, 2019년 16.6%, 2020년 16.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교육개발원, 2021. 4.1.). 이들 중 청각장애 대학생은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시각장애인과 함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교육부, 2020). 청각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진학 후 학업, 대학생활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른 장애 유형과 다른 독특한 부적응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고(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 대상 학교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3조 2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 근거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비롯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과 장애 대학생 교육 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2020년~2022년) 등의 제도 및 정책에 기반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역량과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이상 대학들은 비대면 원격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장애 대학생들 역시 대학 생활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 대학생들은 학업 적응과 학습권 보장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이슬기, 2020. 3. 19). 더욱이 202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초·중·고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과 대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전 학교 급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학습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 및 학교 현장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플립 러닝 등의 수업 형태를 제안해왔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은 특수교육 수요자에게 대면 교수와 비대면 교수의 이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언택트시대 대안적 교수법으로 제안되고 있다(Christensen, Horn, Staker, 2013). 블렌디드 러닝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하여 학생 - 교사 - 교육 자료의 상호작용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하지만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소리 감각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를 수반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청인 학생, 청인 교수자와 상호작용에 장애를 경험한다. 학습의 주체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현재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 및 편의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권순우, 2017; 김선희, 2018; 교육부, 2019) 대학별·장애 정도별 서비스 양과 수준이 미흡하거나 차이가 있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 처해져 학습과 대학생활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현주 외, 2020). 코로나19 확산세의 감소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 환경을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도 유용하게 구축하고, 이러한 비대면 교육 환경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 벽 허물기 및 한국청각장애인교육연대 등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습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상실로 학업 포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더 인디고, 2020. 4. 6). 한편으로 이전의 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경험했던 대학 3~4학년에 대해서는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서 경험되는 학습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미래의 진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과 현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학습 도전을 받고 있는

지에 관한 기초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전략적 교육복지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020년을 거치면서 많은 연구자, 교육 종사자 등이 청각장애 학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환경에서 수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학습 경험 및 인식 등을 양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청각장애 학생 관련 질적 연구들은 청인 연구자와 교사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주로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강성구,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원격의 융합교육 환경에서 고등교육 주체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도전받고 있는 개별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정책 및 교육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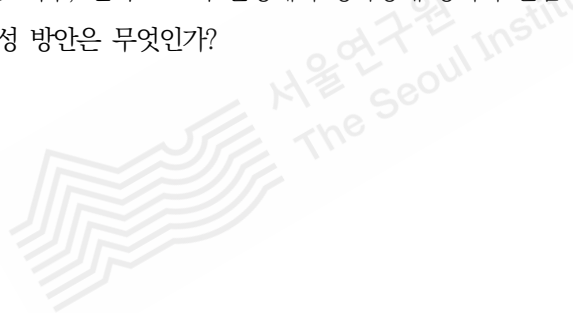
2_연구 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과 학습의 도전을 탐색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역량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전·후 청각장애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학습 및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과 사회·정서적 도전은 무엇인가?

셋째,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포괄적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은 무엇인가?



02. 선행연구 고찰

1_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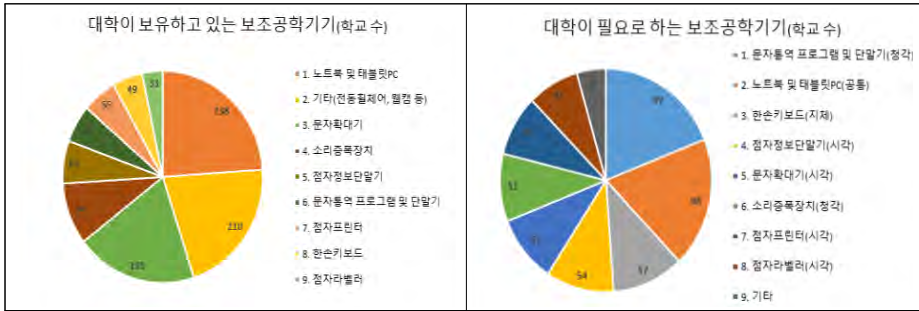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이 주된 기준이 되어 청각장애를 판단하고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평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청각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은 청인과 구분되고, 고유한 농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수어라는 모국어를 구사하며,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 집단인 농인 사회에 일체감을 갖는 농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수집단의 특징(요나시아마 외, 2002)으로 요약되어 설명된다. 장애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장애인 통계연보, 2020), 그중 일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영유아기에 청인 부모의 결정에 의해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에 걸친 언어재활을 받는다(허명진, 2014).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은 22.7%이다. 전체 청각장애인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61.3%로 현저히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학 이상 교육 수준은 12.2%로 일반 청인 인구의 대학 이상 교육 수준인 38.6%에 비해 낮은 비율이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애인 통계연보, 2020). 한국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은 낮은 교육 수준과 청각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분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성인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직업의 안정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달엽, 2019). 그러므로 청년 청각장애인들은 특정 장애와 빈곤의 복합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독립, 생산성의 역할에서 배제되어 의존적인 성인의 범주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청각장애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이 시대의 일반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 불평등(서울연구원, 2021)에 비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이 성인기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준비 시기인 청년기(청년기본법 제3조) 중 성인기 출현기(Emerging adulthood)(Arnett, 2000)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청년기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는 발달적 관점, 포용적 교육 관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정적 상황 속 청각장애인 관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이었던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이기 시작을 대학 진학과 대학생활로 시작한다. 청년기(청년기본법 제3조)에 속하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전문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 학문 탐색과 지식 획득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몰입한다. 이들은 대학에서 청인 학생들 및 청인 교직원과의 교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중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선 경험(김경열, 2015)을 통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해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 중 일부는 늦은 나이에 고등교육 욕구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로 있으나, 이들 또한 젊은 청각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학문과 자기 능력을 탐색하여 향후 이중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 시 개인의 발달 주기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포용적 교육 관점에서 청각장애 대학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 및 복지정책은 포용 사회(Inclusive Society) 구현이라는 비전(보건복지부, 2021)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고등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부설로 두고, 장애 학생 유형별 교수학습 영역, 시설 설비 및 대학생활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권순우, 2017; 김선희, 2018) 장애인의 교육 배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Person in Situation)를 강조한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배제적인 교육 환경이라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주도적 학습 참여의 장애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협동학습 기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으로 대학교육체계가 전환된 지금의 특별한 상황이 소리감각의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이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 처해져 학습과 대학생활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일반 청인 학생들에 비해 청각장애 대학생이 도전받는 독특하고 심각한 도전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 전·후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장애 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34조와 함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학생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소속 대학의 장애 학생에게 교육복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 항목에서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수·학습 지원 체계 및 운영, 학습 보조 기기 및 보조 공학기기, 학습 및 평가 지원, 장학 지원, 상담·진로·취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설비 항목에는 캠퍼스 내부의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등의 시설에서의 장애인 지원 여부, 위생 시설, 안내 및 기타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김선희, 2018; 교육부, 2019). 교육부는 지난 2005년 장애 대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위해 이동과 편이, 수어 통역, 숙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편의를 위한 ‘일반 지원’과 수어 통역 등 ‘전문 지원’으로 나누어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성행하던 2020년 2월,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을 22억 97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 지원 인력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했다(국가평생교육원, 2021). 원래 이 사업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수업 대부분이 원격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국 321개교 장애 대학생 8,669명을 대상으로 장애 대학생 보조공학기기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림 1)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받고, 장애 학생 수가 다수인 대학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전히 열악한 지역의 대학과 장애 학생 수가 적은 대학은 대학 내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장애 대학생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가하고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 제작, 문자 통역, 과제 관련 원격 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학교당 연간 720만 원에서 수강과목당 연간 1천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하였다(교육부, 20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단가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등 능동적인 제도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들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속기 자막이나 수어 통역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 지원이 수강하고 있는 전 교과목과 협동학습에 참여하기에 충분치 않았다(이현주 외, 2020). 청각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한국청각장애인교육연대(이하 농교연)와 인권단체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자마자 청각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가이드를 제작하여 대학에 일괄 배포하였다(National Deaf Center, 2020). 코로나19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직면하게 되는 학습의 도전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담은 프로토콜을 매뉴얼로 만들어 실행하였다(Halley,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대응은 대학별·지역별·장애 유형과 정도별, 전문 인력풀의 실태 파악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 확대와 가시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외국의 교육복지 정책 대응은 장애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든 대학들이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체계화하여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직면하는 도전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과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참여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 대학생 대상 국내·국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인 연구자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청각장애 당사자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는 대상에게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 그러나 장애영역 중 발달장애인(김태경, 임정원, 2018), 정신장애인(김민아 외, 2016), 지적장애인 연구(전정식 외, 2013; Overmars-Marx, Thomese, & Meininger, 2017), 그리고 여성장애인(박경미, 김민아, 2017)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청각장애인 참여연구에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연구주제도 청각장애인의 정체성(Pfister, 2013, 2015; Faircloth et al., 2016)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청각장애 당사자 참여연구의 일환인 포토보이스 연구 설계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언택트 교육 실태와 직면하는 도전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후 청각장애 당사자와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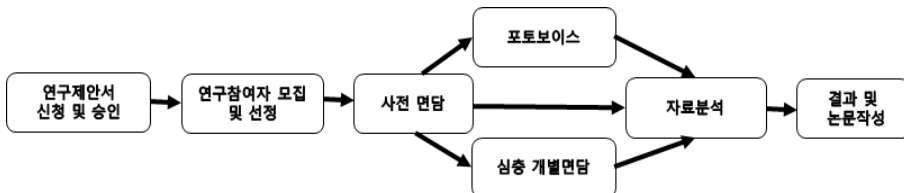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이후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

03. 연구 방법

1_혼합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적 실행 연구의 일환인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과 보완적인 심층 개별 면담 방법을 활용한 혼합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청각장애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포토보이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어려운 소수집단을 대하기에 적합하고(Wang & Burrism 1997), 둘째, 시각적 이미지인 사진으로 연구참 여자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 특성상 입이 아닌 손을 변환 체계로 하고, 귀보다 눈으로 지각한다.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음성언어 중심의 연구자가 청각장애인에게 접근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청각장애 당사자의 참여적 실행 연구의 미진함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연구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의의가 있다(Wang, 1999). 넷째, 연구자는 포토보이스를 통해 도출된 청각장애인의 핵심 문제를 개별 면담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 참여 당사자의 포토보이스와 개별 상담에서 수집된 자료와 보완적으로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정책제안을 하였다.



[그림 3] 혼합적 연구 방법 수행 절차

2_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주제를 이해하고 청각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관해 풍부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① 한국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장애인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이고, ②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으로, ③ 연구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였다.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일차적인 추천을 받았다. 이들 중 연구주제를 이해하고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풍부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모집

청각장애 대학생 모집은 첫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청각장애인 복지관의 청각장애학습지원센터 담당자와 소셜네트워크상 농공동체 계정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 범위, 연구 참여자 모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기관의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상 농공동체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셋째, 자발적인 연구 참여자 중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포토보이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이상적인 참여자 수 7명(Wang, 1999)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 1명,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근무자 2명, 그리고 지역사회 청각장애 관련 복지 기관에서 청각장애 학생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담당자 1명, 그리고 청각장애 인권운동가 1명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최종 5명을 선정하였다.

3_자료수집

1) 포토보이스 수행절차

포토보이스 연구 설계는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사전면담 1회, 연구 참여자 개별적 사진촬영 활동과 개별 면담 및 집단 만남 5회, 종료 만담 1회로 총 7회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대면으로 실시한 사전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설명,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 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사전면담에서 중요한 과업은 연구 참여자들이 집단토의를 통해 연구의 대주제 관련 상위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토론 과정을 거쳐 선정한 주제 1은 “코로나19 전후 경험하는 학습의 어려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주 집단토의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포토보이스 활동과 그 이후 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선정한 나머지 주제 2는 “코로나19 이후 학습역량의 변화”, 주제 3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 총 3가지 주제로 대면 2회, 비대면 2회, 총 4회에 걸쳐 포토보이스 활동과 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셋째, 종결 모임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과 포토보이스 활동 및 집단토의 내용을 얼추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후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심층 개별 면담 수행절차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연구 참여자 7명으로부터 각각 선정한 주제 관련 촬영한 사진을 선별하는 작업과 사진에 담긴 내용을 카톡으로 공유하였다. 연구 수행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포토보이스 활동과 집단토의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어와 수어 구사 정도가 달라 매 회기마다 이루어지는 집단토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회기 전·후 실시한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자기성찰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개별면담이 중요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4회의 포토보이스와 집단토의 기간 중 개별 카톡 30회 이상, 줌을 활용한 개별 면담 7회, 대면 개별 면담 7회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자는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개별 면담을 대면 2회, 비대면 방식의 전화 통화 3회로 총 5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개별 면담은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포토보이스 활동 및 집단토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일차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4_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Wang & Burris(1997)의 포토보이스 분석방법과 Braun & Clarke(2006)의 주제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과정은 먼저 연구 참여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연구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담긴 의미 있는 사진을 선택하였다. 둘째, 선정된 사진들의 의미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먼저 언어로 체계화하고, 주제로 분석하였다. 셋째, 포토보이스 연구결과물과 연결되는 자료들의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범주화하여 상위주제와 하위주제 간 연결을 검토한 후 해석하였다.

5_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참여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는 노력을 하였다. 첫째, 질적연구의 일관성 확보 위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둘째, 질적연구의 사실적인 가치 실천을 위해 수집된 원자료에 충실하게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실적 상황에 가깝게 표현하여 서술하였다. 셋째, 질적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의식적인 팔호치기 노력을 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결과가 현장에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해석과 분석 내용을 검토 받고, 질적연구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준수하였다. 둘째,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수집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참여 거부 및 철회 존중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04. 분석 결과

1_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 1학년(2명), 2학년(2명), 3학년(1명), 4학년(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 2명이었고, 연구 참여자 중 2명이 코로나19시대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은 이공계열 2명, 인문계열 3명, 교육계열 2명이었고, 전체 7명 중 6명이 수어 중심으로 소통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F만 구어 중심 소통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교육 배경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A, E는 일반학교 통합교육에서 특수학교로 전학했고, 연구 참여자 F, G는 초중고 과정을 일반학교 통합교육과정에서 공부하였다. 연구 참여자 B, C, D는 초중고 전 과정을 특수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연구 참여자 C를 제외하고 모두 보청기를 보조 기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학과/학년	의사소통 수단	보조 기기	중/고등학교
참여자 A	여	이공계열/1	수어>구어	보청기 (좌, 우)	일반학교 통합교육 / 특수학교
참여자 B	남	인문계열/1	수어>구어	보청기 (좌)	특수학교
참여자 C	남	인문계열/2	수어>구어	-	특수학교
참여자 D	여	이공계열/2	수어>구어	보청기 (우)	특수학교
참여자 E	여	교육계열/3	수어>구어	보청기 (우)	일반학교 통합교육 / 특수학교
참여자 F	여	교육계열/4	구어>수어	보청기 (좌, 우)	일반학교 통합교육
참여자 G	여	인문계열/4	수어>구어	보청기 (좌)	일반학교 통합교육

2_주제 분석 결과

1) 코로나19 전·후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내 교직원과 청인 대학생들의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인한 관계로부터 사회·정서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인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상태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학습 지원 인력 배치와 편의 지원의 노력들로 이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자가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적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인 대학생들이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 씀 대신 청각장애 학생에게 지원된 속기 지원 서비스의 자료원인 속기록을 요구하는 잘못된 태도들에 당황스럽고 거절하기 곤란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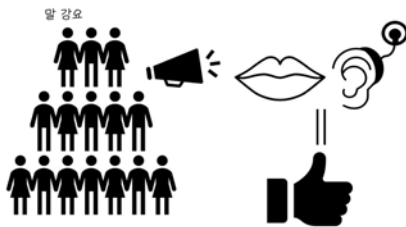
(1)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청각장애인인에 대한 이해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청각장애인인 능력에 대한 이해가 상호 연관되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인식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만나는 청인 교직원들로부터 청각장애 상태의 다양성을 고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인 인공와우와 같은 보조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여겨 음성언어로 소통과 음성언어 발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인 보조 기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듣고 말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선입견에 기반 한 음성 중심의 소통 요구 태도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각장애 학생에 대해 ‘~하기에 불가능한’과 같은 부정적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OO는 저랑 똑같은 농인이고 와우를 해서 말을 잘해요. 전에 OO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나면, 저는 말을 못 해서 수어를 사용하거든요. 저한테 ‘통역이랑

속기 필요 없지?’하고 물어봐서 당황했어요.” (참여자 D)

“저한테 ‘너 보면 쉽게 포기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꿈을 포기하면 뭔가 장애 때문에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줄 알고 편견을 가질까 봐 걱정돼요.” (참여자 A)



[그림 4] 말 강요, 듣기 강요

“장애는 모두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어랑 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수어와 필담이 불가능하지만 대신 잘 듣고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해요.” (참여자 B)

“영화 촬영, 편집을 해서 만들고 싶은데. 보면, 꼭 소리가 필요해요. 음향을 다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청인은 잘해. 왜냐하면 들으면서 바로 컴퓨터로 할 수 있어. 재네 따라잡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라고 나한테 말씀하셔서. 나는 왜 내가 일반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지. 왜냐하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 다 똑같거든. 그런데 나의 꿈이 아닌 일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말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중략)... 물론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없어서 누군가와 같이해야 되는데. 소리는 청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여자 D)

(2) 대학생활 중 관계로부터 고립과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 청인 동기나 선후배, 교직원들과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감각 장애로서, 비가시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어서 청인 동기들로부터 소통하기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집단 학업활동에서 고정적 역할이 주어져 능동적 발표 참여를 제한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류를 이루는 청인 학생들 속에서 농인이라는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학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청각장애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인 교수들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청각장애 당사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관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반면, 청각장애 당사자가 대학생활과 학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① 소리감각 장애인은 관계 회피 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청인들과 공존하고 소통하며 대학생활을 함께해야 한다. 청각장애는 말하지 않으면 먼저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장애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장애 특성 때문에 청인 동기나 선배들이 다가왔다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태도를 알지 못해 당황하여 오히려 거리를 두는 반응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청인의 반응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 청인과 관계 형성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입학했는데 항상 떨림도 있고, 또 긴장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못 다가와요. 왜냐하면 청인 입장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걸어왔다가도 청각장애인인 거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요. 그래서 떨림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인은 다가오지 않아요.” (참여자 G)

② 청인 학생들 속에서 청각장애로 인한 소외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 중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집단활동의 참여 제한이었다. 이들은 교과별 집단활동의 과제가 주어질 때, 청인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청각장애가 배려되지 않고 음성언어로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집단 나 자신의 역할이 PPT 제작에 한정 지어지는 현 사태를 정서적 소외감과 차별로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 3학년이죠. 이제까지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조별 과제 있을 때 비장애인 예 들어 말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농인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요. PPT만 만들라고 요구받는 게, 다른 방식으로든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조에서, 교수님과 얘기한 적 없어요.” (참여자 E)



[그림 5] 소외

“수업을 40명 정도 같이 듣고, 줌으로 하고, 가끔 조별 과제도 있는데 꼭 원래 10명이 모여서 과제를 하는데 제가 청각장애가 있으니깐 채팅으로 부탁했는데 계속해서 말로 대화를 해서 저를 제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음. 차별감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제 동기들은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모두 알아요. 그래도 회의할 때 말로 하죠.” (참여자 E)

③ 청인 교수의 부담스러운 관심과 무관심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원과 청인 동기들에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청인 교수자가 청인 학생과 다르게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눈에 띄는 관심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연구 참여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들이 대학 생활과 학업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자와 면담과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포기를 결정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하였다.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보통 교수님들은 교단에서 말로 여러 명을 보면서 강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저를 계속 보면서 강의하시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참여자 G)

“이들 전에 학교를 갔는데요.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직접 찾아오라고 하셔서 저는 ‘왜지? 왜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겠습니다’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니깐 힘내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왔어요. 왠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여자 B)

“학교를 가고 싶는데, 저희 학교는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 수업하는 교수님 한 분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학교를 한 달 정도 쉬 적이 있어요. 그게 좀 연결돼서 3달을 쉬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교수님과 상담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상담이 몇 번 거절돼서.. 저의 학교생활,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슬럼프를 참다 다음 학기에 휴학을 결정했어요.” (참여자 C)

(3) 청인 동기로부터 받게 되는 불편한 요구

대학에서 청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속기 지원이다.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나 보청기 등 보조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나 가청범위와 정도가 학생들마다 다르고, 완전한 들음에 이르는 데 한계가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 학습도우미를 배정받고 속기 지원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는 청인 동기나 선배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기록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무례하고 불편한 태도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양 수업 때 속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다음 주에 자기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깐 뭐지? 예비군 훈련? 가는 것 때문에 저한테 부탁해서. 저는 고민하다가 (그 남자한테) 한 번 보내주고 말았어요. 원래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데” (참여자 G)

“저도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1학기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그냥 아는 동기가 속기를 받으려고 갑자기 중간고사 하루 전에 제 친구한테 저한테 속기록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어요.” (참여자 D)

“제가 속기 통역 덕분에 수업을 다른 학생보다 더 잘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나도 속기록 받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도움받으러 온 거니깐.” (참여자 C)

(4) 학습 지원 인력과 기기 지원의 미흡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전공도 상이하였다. 해당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도 차이가 있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학습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도우미의 비전문성이 연구 참여자의 학습역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밖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편의 서비스가 부적절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① 장애 정도와 학교별 학습 지원의 차별

대학마다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면 청각장애 학생의 욕구에 무관심하여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게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여 집단토의에서 각자 소속된 대학의 장애 정도 및 학교별 학습 지원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서비스에도 적극적인 참여자 E, F가 재학 중인 대학에는 청각장애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대학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정 교과목(예: 국제수어, 자격증 과정, 취업캠프 등)을 편성하여 다양한 학습 참여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A, B, C, D, G가 재학 중인 대학은 학습도우미 모집이 어렵고, 학습도우미 교육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다. 또한 전문 속기사, 영어 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가 부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역량 향상과 교과목 진도 성취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장애학습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들리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예 완전 안 들린다 고 말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조금은 듣는 거 안다고 말해서 정말 당황했어요. 장애 도우미 학생을 구해줬는데 교육은 없더라고요. 그냥 학생이 알아서 조정하라고.” (참여자 C)

“OO대학교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설된 과목은 진짜 처음 봤어요. 저희 대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실용영어, 영어 필수 대신해서 국제수어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엔 컴퓨터 과목을 배우는 것이 속기사 지원도 한계가 있고, 농인인데 들으면서 실행하고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폐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할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G)

“저희 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청각장애인이 고용돼서 일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죠. 학교에서 장애 학생 자격증 수업이 학기마다 있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있어요. 방학 때 있고, 학기 중에 있고, 알기로 2년 전에 바리스타 수업도 농인도 같이 들었어요. 이번 방학, 겨울방학 때는 엑셀 프로그램 2급 마스터도 따고, 장애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통역 지원도 해줘서 좋았어요.” (참여자 F)

“전에 따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대면을 처음으로 할 때 저는 못 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태블릿, 자동 번역을 해주는 태블릿? 그런 걸 받았어요. 받아서 사용해 봤는데, 통역이 이상하고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속기 통역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복지카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드렸는데, 경증이라서 못 받는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진짜로 안 들린다고 했더니, 경증이라서 안 된다고. 자동 번역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속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에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저희 대학교 안에는 중증만 속기사랑 수화통역사 지원이 가능해요. 경증은 안돼요. 왜냐 하면 중증은 언어장애가 있어서 인정되는데, 경증은 안돼요.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 만 규칙대로 따라야 한다고 장애 학생 센터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중 략)... OO대학교에도 취업캠프가 있다고 듣고, OO대학에도. 그런 점들이 부러웠어요. 저희대학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참여자 G)

② 도우미의 비 전문성이 학습역량 향상에 장애요인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학습 지원 서비스는 속기사, 수어 통역, 대필 서비스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든 교과목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수어 통역사의 전문성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비전문 속기사 또는 전문 속기사를 통해 속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비전문 속기사들이 같은 대학의 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속기에 오류가 많았고, 제시간에 속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에 장애를 경험하였다. 또한 외국어 교과목의 경우 영어 전문 속기사 모집이 어렵거나 필요한 교과목에 배치되지 않아 수강 교과목을 포기하거나 낮은 학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4. 원어민 관련 전문속기사가 없는 경우



[그림 6] 외국어 전문 속기사가 없어서

“영어는 도움 못 받아요. 도우미들도 영어 못해서. 그냥 번역 앱 써서 하는데, 실은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말 못 해서 서로서로 답답해해요. 아 그러면 아예 포기... (중략)... 저는 가끔 실시간 강의 말고 녹화해서 올리는 강의를 있는데. 동영상은 4시간 짜리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속기를 만 들어서 주는데, 강의를 보면서 속기록 내용이 맞나? 싶기도 하고, 강의랑 속기 내용이 맞춰지지 않아서 집중이 잘 안돼서..” (참여자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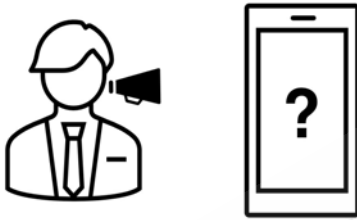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이해 주는 능력이 있는 수화통역사면 좋고. 만약에 수화 기술이 별로면 속기가 더 나아요. 기술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 수어 통역이 좀 아닌 사람이 와서 보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수화를 사용하냐?라고 생각하며 모를 때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서 보는데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수화 기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B)

“말한 대로 생각했는데. 속기도 편한데 (속기사)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속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때 화가 많이 나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뉘고 차이도 있어요. 수화하는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중략)... 제가 속기사한테 까먹었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속기사분들은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세요. 속기사분들은 속기를 치면 끝이니깐요. 그런데 수화통역사는 이해하시고 음성통역을 하면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득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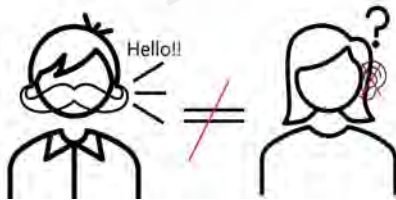
③ 불충분한 학습 지원으로 정보 접근과 학업성취에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청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수교과목을 수강하였다. 그중에서 청각장애로 인하여 영어 교과목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영어 전문 도우미를 요청해도 적절한 배치에 한계가 있어 번역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지만 잦은 오류로 정보 접근과 강의 참여에 한계를 경험하였고 학업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담당 원어민 강사가 한국어를 몰라도 1:1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번역앱이 제대로 번역이 안될 경우



[그림 7] 자동 번역APP 작동 오류



[그림 8] 무슨 말?

“영어 과목 듣고 있는데. 영어 속기 지원이 없어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텡 이런 거 줘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동번역 앱을 쓰는데, 이게 오류가 자주 나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 같은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영어는 도움 못 받고. 동기도 영어를 도와줄 여유 없고, 그냥 원어민 선생님한테 번역 앱 쓰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D)

“이게 원어민 교수님이 한국말 못 해요. 청각장애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원어민 선생님도 한국말 몰라 서로 답답해하고. 그런데 한국어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제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로 강의 하시거든요. 좀 수업도 그렇고.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도 한국어는 속기 받는데 외국어는 그렇지 않으니까 1:1 지도가 필요해요.” (참여자 E)

④ 부적절한 서비스 지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으로 경험하는 독특성이 있어서 다른 장애유형들과 다른 서비스 전략을 필요로 한다. 대학에서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교수 학습 서비스의 욕구조사 및 학교행사나 서비스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속해 있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과사무실로부터 음성 전화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았다. 이들은 청각장애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대학의 일괄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해 주고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도움받기 원하는 점과 도움받지 않을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원하지 않는 도움이 무엇이나 하면. 토익 면제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데 거기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 선택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OO네 학교처럼 국제수어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토익을 볼지 국제수어를 볼지 선택하면 되니까.” (참여자 C)

5. 대학교 공지나 안내 등에 문자가 아닌 전화로 하는 경우



[그림 9] 공지를 전화로 하면 어떻게 해

“도움이 다른 방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게 무엇이나 하면 제가 대학교 혁신, 혁신에 대한 정보와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 정보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항상 연락 줄 때 꼭 전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해달라고 해도 쉽지 않고, 또 대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통보해 주는데 저한테는 전화로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문자로 알려주면 제가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너무 전화만 줘요.” (참여자 C)

(5) 장애의 다름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 기준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청인들, 다른 장애유형과 구별되지 않기를 바라고, 한편으로 청각 장애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학에서 일반적인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나 발표 또는 학습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청각장애 학생은 보조 기기를 활용하여 듣는 기능을 보완했다 할지라도 들음에 한계가 있어 구어, 수어, 제스처, 입모양 등을 포함하는 토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발표에 제한이 있고, 속기와 수어 통역 지원으로 학업이 이루어지므로 텍스트 중심의 시험과 그 결과로 청각장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었다.

“장애인에게 배려해 주는 것은 보청기 또는 수화 통역,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주는 것 외에 평가에 대해서는 시간만 연장해 줄 수 있고, 평가 기준이나 난이도에는 비장애인과 똑같다고 봐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학습 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은 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청각 유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시험도 수어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요. 과제도 수어 영상으로 낼 수도 있고.” (참여자 F)

“시험 보러 갔는데, 한 시간 안에 충분히 풀고 시간도 남았는데 감독관이 저에게 ‘장애인 이니깐 시간 더 줄게요’라고 말하는데 당황했어요. 20분 정도 시간을 더 줘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장애인 유형에 따라 따로따로 제한을 뒤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G)

“영어 듣기 시험은 청인은 들으면서 시험 보는 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농인은 듣지 못하니깐 지문을 보면서 시험을 봐요.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 유형마다 나눠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확실하게 나누는 것이 더 나아요.” (참여자 B)

2) 코로나19 이후 학습역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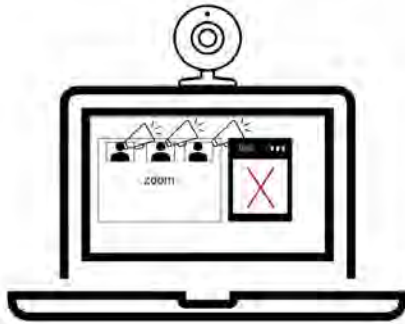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참여자인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지양하는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거의 모든 교과목을 비대면 교육방식의 일환인 온택트(On-tact)로 공부해야 하는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러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긍정적 학습역량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1)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에서 처음 겪어보는 공부법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정보 접근의 한계, 청인 학생과 학습 격차,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데 몰입이 저하되고 학업에 의지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① 처음 겪어보는 공부법에 정보 부족 및 접근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20대 초반으로 인터넷 사용과 이메일, 카톡과 같은 온택트(On-tact)의 정보 전달과 소통이 일상적이어서 비대면 소통 방식이 낯설지는 않았다. 이들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온택트(On-tact) 교육방식 중 실시간 화상(ZOOM) 강의에서 교수자의 음성강의 내용과 다른 학생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 속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모두 수강하는 교과목에 교수 학습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으며(참여자 B, C, G), 속기 지원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속기사가 지각하는 경우 그럴 때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수업 진도를 따라잡지 못했던 경험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의 경우 비대면으로 교육방식이 전환되면서 협동학습의 기회가 사라져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롭게 접하게 되는 교육 환경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기회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학생활에서 알아야 할 학과 지침이나 절차 등을 알 기회를 상실한 채 1년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3~4학년 재학 중인 경우 임상실습이 불확실하거나 졸업 준비를 위한 인턴십 자리도 쉽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림 10] 줌에서 모름이 많아짐

“저는 청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농인은 직접 수업을 들어야 공부가 잘돼요.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나 줌에서는 (교수님,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필기할 걸 보면서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대면으로 하면 아는데. 그런 것처럼 농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끊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맞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지금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잘 하고 있나? 생각 들어요.” (참여자 D)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통역사가 들어와서 자막을 써주고, 통역사와 같이 하면 더 도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다고 할 때 말로 하는데,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편하고 알아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고 싶습니다.” (참여자 A)

“대학에 대해서 팀플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생활해보니까 팀플에 대한 로망은 사라졌어요. 왜냐면 어... 동기랑 뭐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교양 과목이 다 3, 4학년 형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 말투가 끈대예요. 너무 끈대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제가 만드니까 후배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못하면 어떡해요’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뭐라고만 하고요.” (참여자 C)

“2학년까지는 괜찮았는데 3학년은 전공과목도 더 공부해야 하고, 그래도 학교생활을 해봤으니까. 강의실 강의도 들어보고. A, B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문제는 우리 과는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참여자 E)

②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청인 학생과 멀어지는 학습 격차

연구 참여자들은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교수 학습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이 어렵게 느껴지고 청인 학생들과 학업 격차를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학습역량의 부족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교수학습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상호 연관돼 학습 격차라는 부정적 이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청인 학생과 학습 격차가 자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교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지 않는 교육복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림 11] 문제가 뭘까? 누가 문제일까?

“나의 부족함,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처럼 대학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과 땅 중간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휴학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수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참여자 C)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이 수업이에요. 이 과목 도우미 학생이 일요일 늦게 들고 나서 수요일까지 타이핑 쳐서 줘요. 그런데 문제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밤까지 내야 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숙기도 없고, 자막도 없고, PPT도 있는 과목 있고 없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도우미 학생은 기다리라고 하고 늦으니깐 어쩔 수 없이 과제만 똑같이 베껴서 제출하고, 상대적으로 학점은 D를 받고.” (참여자 D)

“제가 올해 휴학했지만 강의 계획서를 읽어 봤는데요. 2학년 때, 1학년 때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제가 2학년 때 보니까 전공이 작년에는 세 개까지였는데 올해는 다섯 개예요. 전공이 다섯 개요. 교양까지 추가하면은 일곱 개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좀 강의 속기 지원도 그냥 책 읽는 거랑 다르지 않고. 교수님들이 동영상 강의 올린 거 도우미가 속기해 주면, PPT만 봐야 하고, PPT 안 올리

는 분도 있고, 속기 늦어지면 혼자 공부해야 하는데. 어휴, 거기다 모든 과목이 과제가
많단 말이예요.” (참여자 C)

③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배움과 학업의 의지 및 가치 저하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첫 학기에 비대면 교육방식에 적응하기 바빴
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두 번째 학기에는 정서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될 때 대학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 A와 B는 비대면 교육 환경
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졌을 뿐 대학교육의 가치와 배움의 의지를 세우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



[그림 12] 학업 의지가 꺾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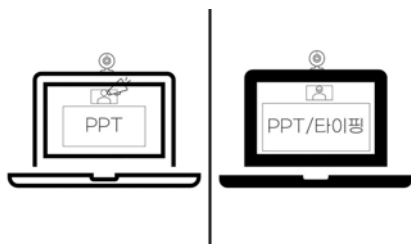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의지에 대해서 말하
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생활이 너무.
제가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에 콕 박혀
서 있고. 동영상 올린 거 속기록 받아보
고... (중략)... 점점 공부할 의지가 없어
요.” (참여자 C)

“원어민 선생님 녹화한 거 보고 번역한 내용 번갈아 가면서 보면 괜찮은데. 실시간 수업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서 힘들어서 문제예요. 모르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아예 포기해야 해요.” (참여자 D)

④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 학습 몰입도 저하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 방식 중 교수자가 올리는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
(Zoom) 강의를 병행하여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들은 교수자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PPT 자료와 속기사의 속기록을 자료원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나 공부한다고 여

저지기보다는 속기록을 읽는 행위에 그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더욱 교수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속기록과 PPT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강의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림 13] PPT와 속기가 불일치

“그냥 영상 안 보고, 왜냐하면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입모양만 봐야 하니까, 영상을 틀어놔야 출석 인정이 되니까 시작만 해놓고 속기록만 쪽 읽을 때가 많아요. 그게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속기록을 쪽 읽고 넘어가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사실 속기록 보면 PPT 내용과 다른 게 많으니까 맞는지 모르겠고. 강의를 듣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여자 D)

(2)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전환 이후 학습역량의 긍정적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된 이후 새로운 교육방식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들은 언택트 교육 환경의 전환이라는 학습의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학습역량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대면 교육방식이 일상화되면서 교수자의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1:1 피드백 증가하였고, 그동안 청각장애로 집단활동 참여에 한계를 경험했으나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카톡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 협동학습인 집단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택트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는 능동적 대처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향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고 있었다.

① 교수자의 1:1 피드백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에 따라 개인의 학습역량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수자가 청각장애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어떤 교수 학습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지원할 경우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1:1 지도 및 상담, 동영상 강의 탑재 시 자막을 첨부하거나 실시간 화상강의 시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하는 상호작용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 학습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따로 교수님 면접. 아, 뭐래. 줌으로 상담받았는데. 교수님은 채팅 안 하고 청각장애인인지도 모르고 마이크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채팅으로 쳤는데 교수님이 왜 말 안 하나고 말씀하셔서. 저 청각장애 있다고 말하니깐. ‘아! 청각장애인이 너였구나.’라고 하셔서 채팅으로 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으니깐 줌이 더 편해요.” (참여자 D)

“원어민 수업 들을 때 제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1:1로 발음 교육을 해줬어요. 시간을 내서... (중략)...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했어요. 대학원 갈지. 아니면 임용을 볼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는데 또, 졸업 시험에 대해서도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그 임용시험 똑같이 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줌 개인상담요.” (참여자 F)

“교수님이 영상 녹화한 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나, 두 번째 줌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해서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격으로 연결해서 속기 지원받아서 보는데, 자막은 교수님마다 달라요.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자막을 영상에 자막을 같이 만들어서 올려 주셨던 분도 있어요.” (참여자 E)

② 협동학습 참여 증가

청각장애는 소통의 장애를 수반하기 때문에 학습 접근과 참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소통의 장애는 청인 학생들과 협동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협동학습도 이전의 음성 중심의 소통과 활동에서 비대면의 단체 카톡 방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집단토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협동학습 방식의 변화는 청인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집단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후에는 카톡으로 조별 과제 많이 하면서 카톡 하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몰랐던 사람들 이랑도 많이 카톡하고 줌 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서로 줌에서 이거 뭐냐고, 그리고 지금 이거 무슨 말이나 서로서로 동기들이 서로서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분 만 아니고 다른 과 사람도 서로 서로 그렇게 대화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뭐지? 카톡 방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 줌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모두에게 다 계속 물어봤어요. 덕분에 공부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입모양을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가르쳐주니까 나중에 확인, 복습도 할 수 있고 좋아요” (참여자 F)

“코로나19 때문에 팀플 줌으로 해요. 가끔 직접 만날 때도 있고. 저는 처음에 팀플 싫었어요. 안 좋다는 말이 많아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깐 좋아요. 재밌어요. 뭐 잠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은 지금 협동심이 좋아서.” (참여자 D)

③ 자기주도 학습역량 향상

연구 참여자들은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환경에 적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비대면 협동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화상강의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연습과 복습의 반복, PPT 자료와 속기 자료, 그리고 교재를 읽고 익히는 두세 배의 개인적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적으로 청인 동기로부터 보완적 설명을 청하고, 같은 청각장애 선배를 멘토로 삼고, 다소 부담스럽고 대하기 어렵지만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질문하기 등으로 자신의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 능동적 노력을 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자 자기계발을 위한 시도로 국제수어를 배우고, 자격증 취득 과정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채팅으로 모두가 토론하고. 처음엔 친구들과 대화 어떻게 해야 하지. 팀플 과제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농인은 말 대신에 타이핑으로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똑같은 위치니까. 지금이 훨씬 편하고.” (참여자 D)

“교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도 하고, 선배의 꿀팁과 조언을 귀담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청각장애가 없었다면 과연 보통 대학생들처럼 지냈을까 생각해 봐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동기, 성취 이런 게 실현할 수 없고 원석을 깎아서 다이아몬드처럼 되겠다고. 그러려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대학교고. 더욱 열심히 전공 공부해야 하고.” (참여자 A)

“아는 선배한테 1:1로 국제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언어에 관심이 많기도 했는데, 대학에 들어왔어도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은 게 없는 거 같아요. 1년 동안. 동기들도 모르고. 줌으로 상담 교수님 만난 적 있는데 학과 교수님 대면으로 만난 적 없어요. 학교에 안 가니까. 뭐 할까 고민하다 국제수화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는 거.” (참여자 B)

3)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역량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생활에서의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후회로 변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점점 무너져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청인 교수자와 동기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이 저하되고, 성격도 외향 지수에서 내향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자기인식을 하였다.

(1) 대학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후회로 변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이 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동등한 출발점, 교양을 갖추는 시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공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며, 자신만의 우물 안 세상에서 우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이 되면서 실망과 후회로 변하였고,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G는 마침내 다음 학기 휴학을 결정하였다.



[그림 14] 기대 + 실망

“한편으로 공부하러 대학가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더 대학교를 통해 제 주변 인간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입학식이랑 MT 그런 거 다 기대했는데 코로나 19가 생겨서 4월까지 비대면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비대면 해서 기대는 포기했어요.” (참여자 A)

“저도 대학에 대해서 팀플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생활해보니까 팀플에 대한 로망은 사라졌어요. 왜냐면 어... 동기랑 뭐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교양 과목이 다 3, 4학년 형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 말투가 끈대예요. 너무 끈대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제가 만드니까 후배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못하면 어떡해요’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해요... 끈대예요... 공부가 부담스럽고 이 상태로 계속 공부할 가치가 있나 생각도 들고, 다음 학기 휴학하기로 제출했어요.” (참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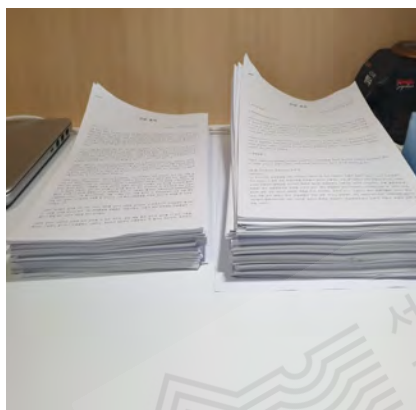
“이상하게 동기 중에 휴학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열 명. 휴학했어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왜 많지? 싶었는데. 이해됐어요. 공부하는 게 부담되고... (중략)... 전공이랑 조금 연관돼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너무 달라요. 갑자기 경제 공부했다가 어느 날은 영어 했다가 컴퓨터 했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대로 2학년 올라가니까.” (참여자 B)

(2)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무너짐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 환경이 되다 보니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실시간 화상 강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 대면 강의 일 때 하루 일과를 아침 일찍 시작하여 낮 시간 동안에 활발하게 개별 및 집단 협동학습 활동을 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에 개별 과제나 자기계발을 위해 할애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패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 주간 듣고 참여해야 할 강의를 정해져 있었지만, 하루의 학습 습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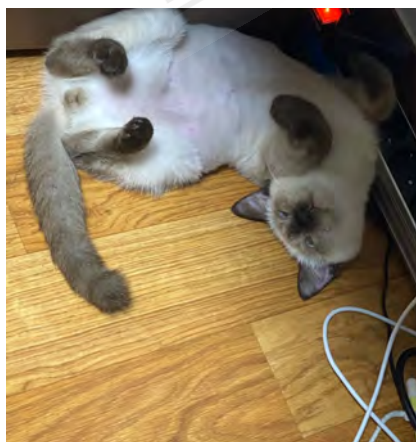
낮에는 자고 밤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다.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도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속기 도우미 지원을 받지만, 동시간대 참여해야 할 속기사가 늦거나, 동영상 강의 속기률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알아야 할 과제나 교육 내용을 늦게 전달받게 되어 일정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전에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집에만 있으니깐 집중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딴짓하게 되고. 핑계겠지만 게임도 하고 그런 습관이 생겨서. 감정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억지로 집에 갇혀 있으니깐. 조금 힘들고 불안감도 더 늘어나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A)



[그림 15] 과제가 소속감 대변함

“이게 지난 학기 리포트 낸 거. 내가 대학생이라는 것을 리포트 양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속기사가 늦어서 금요일까지 리포트 내야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알아요. 그냥 베껴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써야 하는지 피드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여자 C)



[그림 16] 나태, 잠만보

“나태, 잠만보 이런 사진 제목을 붙였는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럴걸요. D도 게임만 하게 된다고. 전 낮과 밤이 바뀌고 살도 찌고... (중략)... 학교에 갈 때는 9과목 들고 해서 집에서 아침 6시에 준비하고 나갔거든요. 학교 가면 어쨌든 수업을 듣게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말 바뀐 거고.” (참여자 E)

(3)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높아짐

연구 참여자들은 보청기와 같은 보조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토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협동학습이 실시간 화상(ZOOM) 회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인 학생들의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알아보려고 집중하고, 잔청으로 전달되는 음성을 좀 더 잘 구별해 보려는 노력이 많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집단활동 구성원들이 연구 참여자가 청각장애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화상회의에서 음성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들은 협동학습 참여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 학생의 협동학습 참여 시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인이나 청인 동기에게 속기나 채팅으로 안내를 부탁해야 하였고, 이러한 부탁에도 속기 지원이나 수어 통역 지원이 매번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이 청인 학생과 함께하는 협동학습 시간에 음성언어로 오고 가는 정보를 좀 더 잘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림 17]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

“교수님들은 팀플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이게 매번 팀플 과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카톡에 한계가 있다 보니, 줌으로 만나게 돼요. 다들 청인이니까 말로 이야기하게 돼요. 저를 배려하는 게 없어요. 한참 있다가 요약해서 채팅창에 쳐주면 그때 알고 얼굴 표정 봐도 입모양 잘 모르겠고... (중략)... 속기지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도 신경 쓰는 사람 있으면 또 안 되고 속기사 하고 팀플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냥 혼자서 잘 들어보려고 해보면 그게 잘 안 되고.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게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A)

(4) 대인관계 - 의사소통 기술 저하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교육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사람과 관계 형성 기회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다 보니, 대학에서 동기, 선후배 및 교수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 이들은 청인 또는 같은 청각장애인과 만남의 기회가 줄다 보니 구어와 수어 능력이 저하되는 자신의 모습을 대인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의 감소로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만남은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 자신의 외향적 성향이 환경에 의해 점점 내향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비대면 학습 환경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지만 자신들의 사회성 형성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의 경우 대학생의 신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현 상태에 1년 이상 지나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생으로써 한 발자국 발을 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구화했던 게 줄어요. 코로나19 전에는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친하진 않아도 청인들과 이야기해보고 그랬는데, 만나는 청인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주는 거예요.. (중략)... 저는 수어를 중심으로 대화하거든요. 농인들 만나는 것도 줄었지요. 코로나다 보니까. 수어도 주는 거예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해지고. 특히 청인 동기들은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데 거리감 드는 거예요.” (참여자 D)

“옛날에는 진짜 외향이었어요. 진짜 외향. 그런데 코로나19도 있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이유가 될 텐데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었어요. 내향으로 바뀐 이유가 뭔가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선생님이 정서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강제로 집에 있고 수업도 집에서 듣고, 계속 혼자 집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적응되고 그래서 내향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INFJ예요.” (참여자 F)

“대학에 대한 기대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농인 선배들 보니까 동아리 활동 대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도 연수 가고 같은 농인들, 아니면 청인들, 다른 장애 학생들과.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코로나19 시작할 때 대학생 되니까. 이런 기회가 사라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인, 아니면 다른 장애 친구들, 아무튼 그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런 걸 모르는 거지요. 과 선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해줄 사람도 없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워하는 것들.. 아무튼 아. 대학생활 모든 게 생각과 정말 달라요. 대학생인데 대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와 다른 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참여자 B)



05. 결론 및 정책 제언

1_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을 탐색한 후,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관점,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시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참여적 실행 연구의 일환인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참여적 실행 연구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매주 집단토의에서 연구주제 관련 하위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집단토의에서 선정한 주제로 포토보이스 활동 후 다시 집단토의에서 개별적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연구자는 부가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 개별 면담을 병행하여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 연구의 대주제인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과 관련하여 집단토의에서 선정한 관련 상위주제는 “코로나19 전·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과 학습의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학습역량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 3가지였으며, 이러한 상위주제를 가지고 5회의 포토보이스 활동과 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과 심층개별면담을 통해 수집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주제 분석 결과

상위 주제	하위 주제
1. 코로나19 전·후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	1)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2) 대학생활 중 관계로부터 고립과 외로움 ① 소리감각 장애인인 관계 회피 대상 ② 청각장애로 인해 집단학습활동에서 배제 ③ 청인 교수의 부담스러운 관심과 무관심
	3) 청인 동기들로부터 받게 되는 불편한 요구
	4) 학습 지원 인력과 기기 지원의 미흡 ① 장애 정도와 학교별 학습 지원의 차별 ② 도우미의 비전문성이 학습역량 향상에 장애 ③ 불충분한 학습 지원으로 정보 접근과 학업성취에 한계 ④ 부적절한 서비스 지원
	5) 장애의 다름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 기준
2. 코로나19 이후 학습역량 변화	1)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 ① 처음 겪어보는 공부법에 정보 부족 및 접근 한계 ②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청인 학생과 멀어지는 학습 격차 ③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배움과 학업의 의지 및 가치 저하 ④ 온택트(On-tact) 교육 환경, 학습 몰입도 저하
	2)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 전환 이후 학습 역량의 긍정적 변화 ① 교수자의 1:1 피드백 증가 ② 협동 학습 참여 증가 ③ 자기 주도 학습 역량 향상
3.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역량 변화	1) 대학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후회로 변함
	2)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이 무너짐
	3)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높아짐
	4) 대인관계 - 의사소통 기술 저하

첫째, 코로나19 전·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과 학습의 어려움 관련 하위 주제는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대학생활 중 관계로부터 고립과 외로움”, “청인 동기들로부터 받게 되는 불편한 요구”, “학습 지원 인력과 기기의 미흡”, “장애의 다름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소리감각 장애인은 관계 회피 대상으로 청인 학생들 속에서 청각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으로 청인 교수의 부담스러운 관심과 무관심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과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당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우미의 비전문성, 청각장애 정도를 배려하지 않는 일관적 지원기준 및 욕구 대비 부적절한 지원, 그리고 학교별 교과목 지원에 차이가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 접근과 학업성취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학습 역량의 변화 관련 하위 주제는 “온택트(On - tact) 교육 환경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과 “언택트(Un - tact) 교육 환경 전환 이후 학습 역량의 긍정적 변화”로 도출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온택트 교육 환경에서 처음 겪어보는 공부법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공부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 학습 정보 정근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청인 학생들과 학습 격차를 크게 느끼게 만들었고, 비대면의 온택트(On-tact)학습이 장기화되면서 학업에 몰입이 저하되어 가고, 대학에서 배움에 대한 가치와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거나 유지하기 힘들어하였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 청각장애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언택트(Un-tact) 교육 환경에서의 학업역량 발휘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코로나19 언택트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긍정적인 학습 역량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과 배려가 증가하면서 교수자와 학생 간 1:1 피드백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청각장애로 협동 학습에 장애를 경험해 왔지만 비대면 집단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청인 학생과 동등하게 단체 채팅창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집단토론에 참여하여 협동 학습 활동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쩔 수 없는 비대면 교육 환경이 체화지게 되었고, 청각장애로 인한 일부의 학습 지원을 받으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능동적으로 찾아 자기 주도 학습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 관련 하위 주제는 “대학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후회로 변함”,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무너짐”,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높아짐”, “대인관계 - 의사소통 기술 저하”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교양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확장하여 사회정체성을 배워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비대면의 교육 환경에서 학습 정보 제공에 필요한 물리적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면 교육 환경 내 협동학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앎과 사회성, 장애 노출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대학 내 소속감, 선후배 관계, 교수와 관계 방식, 동기애 등과 같은 유익성을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비대면 교육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학 교육에 대한 실망과 후회로 변하였고, 이러한 대학교육의 무가치함과 무소속감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휴학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 중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의 경우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공부법을 알지 못한 채 1년 이상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 학생회에서 알아야 할 지침과 절차를 알 기회조차 없는 현 상태에서 1년 전의 고등학생이었던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과 제작과 같은 과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3-4학년의 학과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2_연구의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의사소통 장애인에 속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연구의 관심 대상으로 두고,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습의 어려움들을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성인기 출현기에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기 접어들어 새로운 사회적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발달적 전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는 안정적인 성인기로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비대면의 교육 환경으로 전환시켜 성인기 출현기에 속하는 청각장애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면의 대학생활과 학습을 어렵게 만들어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갈 준비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생애 주기 중 성인기 출현기에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연구의 관심 대상으로 두고,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참여의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적 함의를 모두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포용적 관점을 기반으로 연구 문제 제기와 연구 설계 및 연구 수행이 되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장애 특성상 대학교육 환경에서 대학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으로 전환된 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보고되어,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청각장애 학생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교육복지 정책과 실천 목표를 이루기에 미흡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코로나19 전·후 지속되는 대학생활의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학습역량 및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관점, 그리고 연구자 관점에서 다각적인 교육복지 정책 및 임상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여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상황 속의 인간(Person in Situation)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들을 탐구하였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은 대학교육 환경에서 대학생활과 학업에 취약한 청각장애인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본 연구자는 공공차원에서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교수학습 및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천이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또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 주도로 연구 설계되어 연구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연구의 관심 대상인 동시에 연구의 주체인 청각장애 대학생이 연구 설계에 참여하고 연구 수행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관점이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 보고서 종결까지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의 상황 속 인간(Person in Situation) 관점에 부합하게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코로나19 학습역량 및 사회·정서적 역량 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모두를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적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역량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증진시켜 가고 있다는 새로운 발견은 학문적 함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 복지 실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_교육복지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언택트시대에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의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 가능한 교육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 관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관점,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수렴하여 제안하였다.

1) 청각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제언

(1)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확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대학생들과 학습의 어려움은 도우미 인력의 양적인 부족과 필요한 교과목과 협동학습 참여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전문 도우미 인력이 부재하여 외국어 강의의 경우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도우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집단토론을 통해 대학마다 도우미 인력 관리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학습도우미 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에티켓, 학습도우미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인력 교육, 학습도우미 인력 관리가 보완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수어 통역사의 전문성 요구, 일반 학생 속기 도우미와 전문 속기사의 속기록의 질 차이 문제, 특히, 외국어 전문 도우미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나, 학교마다 인력 풀의 차이가 있어 학교 간 학습도우미 인력 풀의 상호 교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제안하였다.

(2) 청각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 평가 프로토콜 제작

청각장애 학생은 대학교육에서 청각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과 학습활동 참여에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수어 통역이나 속기 학습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전공과 수강 교과목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에도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제나 기본 학점을 부가하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평가 기준보다는 청각장애로 발표에 참여할 수 없어 일괄적인 점수를 부여받기보다는 청인 학생과 다른 방식이라도 발표 및 협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 평가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이 단순 속기 지원이나 수어 통역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별, 전공별, 그리고 개별 및 협동 학습별로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3) 청각장애 학생 전문 학습코칭 강화

연구 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활동 및 집단토의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했던 내용은 개별 및 협동학습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학습 정보 접근의 한계는 소속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학습도우미 지원을 받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세우기, 능동적인 협동학습 참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수하고 익혀야 할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학업과 재학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 학생 VS 교수 또는 멘토의 튜터링 확대, 학년별 - 학과별 교육과정 설명회, 청각장애 학생의 전과 또는 복수 전공 체계에 대한 세밀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2명이 연구 참여 기간에 휴학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휴학에 대한 진로 고민을 나눌 대상을 학교에서 찾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청각장애 대학생의 휴학이나 전과나 복수전공, 또는 졸업 후 진로 고민 등에 대해 진지하게 전문 상담이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4) 청각장애 학생이 접근 및 참여 가능한 온택트 강의 시스템 보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은 비대면으로 전면 교육방식이 전환되었다. 선제적으로 이러닝과 플립 러닝 교육방식을 도입한 대학의 경우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적응의 어려움이 적었다. 반면,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개별적 동영상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의 질에 따라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 교수자 중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관심과 배려로 탑재하는 동영상 강의에 자막을 첨부하거나 실시간 화상강의에 속기사 참여를 허락하여 원활하게 청각장애 학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실시간 화상강의에 학생 중 청각장애 학생

이 수강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고 음성강의로만 강의를 진행하여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을 강의 내용과 진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 개별적으로 속기사를 구하여도 화상강의 시간과 동영상 강의 수강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보다는 강의를 틀어놓고 출석만 인정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탑재하는 강의 영상에 자막 의무화,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예: ZOOM) 교수자와 참여 학생들의 음성언어를 자막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점점 실시간 화상강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을 교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구축하여 청각장애 학생을 민감하게 지도하도록 인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5)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청각장애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안, 코로나 블루, 대학 내 소속감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측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청각장애 학생 위한 사회·정서적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면서, 청각장애 학생들 사이, 청각장애 학생과 청인 학생 사이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적 교류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대면 방식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개로 각종 자격증 수업들, 교양 교과목 등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일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간 청각장애 학생, 그리고 청인 학생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2)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제언

(1) 대학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과업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청각장애 학생 당사자의 제안들과 공통된 요소들이 있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습도우미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학습도우미 재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활동이 증가하면서 학습도우미와 청각장애 학생 간 적절한 연계와 도우미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 속기사 및 수어 통역사 인력풀이 부족한 현 문제점의 해소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언택트(Un-tact)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의 어려움과 이것으로 인한 학업 유보 및 포기과 같은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 학생 대상 학습코칭 강화, 이들의 진로 및 전과 또는 복수 전공, 휴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학년별·학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적 설명을 지원하는 학습 매니저와 같은 인력 구성과 세부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의 취업·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각종 자격증 과정이나 관련 컨설팅 창구 마련을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2) 지역사회 기관의 과업

청각장애 관련 지역사회 복지 기관 및 센터 종사자 등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화 적응과 학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기관차원에서 학습코칭 전문 인력을 구축하여 청각장애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고학력 청각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하고 있는 선배 청각장애인과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 멘토·멘티 연결하여, 향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나누고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또한 고학력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직업영역을 개발하여 취업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현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속기와 수어 통역지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속기사와 수어 통역사 인력을 구축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육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업수행이 강조되었다.

(3) 공공의 과업

먼저,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 당사자와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의 과업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와 교육복지 사업을 도입한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현 교육복지 예산 확대와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연구결과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대학별·교과목별 전문 인력지원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 인력풀의 부족이 청각장애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교과목의 학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대학별 적합하게 배치하거나 학교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 지자체 차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공단에서도 능동적으로 지원 사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고용·직업훈련 평등한 기회 제공은 기본적 권리이다.

셋째, 코로나19 언택트교육 환경에 대응책으로 물리적 교수학습 지원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부와 대학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고통에 무관심했다. 향후 교육복지 정책 및 실천의 방향성은 이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연구자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제언

(1) 단기 목표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와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한 교육복지 정책들을 바탕으로 언택트교육 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습역량 및 사회·정서적 역량의 부정적 변화에 대해 단기 목표를 수립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도우미 인력을 확충과 인력 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도우미 요청이 증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학습도우미가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청각장애 학생이 교수자가 탑재한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여 자신의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꾸준히 학습도우미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온택트(On - tact) 교육 환경에 청각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교수자가 탑재한 동영상 강의에 자막이 첨부되어야 한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학습 도우미가 작성한 속기록을 기다려야 하고, 자연히 동영상 강의에서 제시해 준 과제를 늦게 안내받아 충분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지 못한 채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기 바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수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동영상 강의제작 시 자막이 첨부되면 청각장애 학생은 별도의 속기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평가 결과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강의이다. 이 시간에 청각장애 학생은 청인 교수와 학생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출석을 부를 때 대답할 수 없다. 특히 교과목 담당 교수자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경우 출석을 해도 결석으로 처리되거나 학습 참여의 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 그리고 수업은 전적으로 속기사에 의존하여 강의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교수자의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필요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 도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 저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저하 등 사회적 측면의 문제, 그리고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되어 장기화되면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업 포기나 휴학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을 떠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장기 목표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역량 및 사회·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목표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 중 필수 교과목을 학교 간 학점교류 가능하도록 서울권·경기권 학교 간 MOU 체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청각장애 재학생 수가 다르고 전문 속기사와 같은 전문 학습도우미 인력 풀과 재정적 차이가 있으므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공통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교류하면 청각장애 학생의 학업성취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 학습도우미 인력이 부족한 대학의 학습 지원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기대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학력 청각장애 학생이 증가만큼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나가야 한다. 단일 대학 내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권역별, 대학별,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력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 학생별 교육복지 지원내용을 세분화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프로토콜 제작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 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교수 학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개입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대학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사회인으로 성공적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청인 학생들과 차별적이지 않는 교수자의 평가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구. (2015). 장애대학생 관련 국내 연구 경향에 대한 문헌분석.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2), 21-40.
- 권순우. (2017).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16-233.
- 김경열. (2015).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발달장애연구, 19(2), 1-20.
- 김선희. (2018).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8), 273-2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울연구원. (2021). 서울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와 불평등, 서울인포 그래픽스. 서울연구원.
- 오유신. (2020. 2. 2.) 교육부, 장애 대학생 원격 수업 지원 강화. 코로나 상황 반영.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00452.html 에서 2021년 3월 30일 보았음.
- 요나야마, 기무라, 이찌다. (2002). 농문화의 이해(이와이, 김만영, 김상화 편역). 농아사회정보원.
- 이달연. (2019). 특수교육 재활상담의 연구: 실천 그리고 정책에서 국제장애분류의 함축적 의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1), 147-164.
- 이슬기. (2020. 3. 18). '코로나19' 장애학생 사각지대 해소 필요. 에이블뉴스. https://www.rehabcenter.or.kr:450/?pageid=6&table=cix_freeboard&PC=view&idx=687&page=239&block=23&page_id=19692&uid=33925&mod=document 에서 2021년 4월 3일 보았음.
- 이현주, 이지연, 오은주, 장현숙. (2020). COVID-19 상황에서 통합학급 청각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 실태와 요구도 조사. 특수교육논총, 36(3), 327-348.
- 장애인통계연보. (2020). 2019년 장애인통계연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최원형. (2021. 2. 2.). 정부, 장애대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자막·수어 통역 지원 확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1427.html> 에서 2021년 3월 30일 보았음.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y*. 55(5). 460-480.

Christensen, C. M., Horn, M. B., & Staker, H. (2013). Is K-12 blended learning disruptiv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hybrids. Clayton Christensen Institute.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66878.pdf> 에서 2021년 4월 6일 보았음.

Helly, S.(2020). Guide offers best practices for meeting the needs of deaf students during COVID-19 pandemic. 1-2.

National Deaf Center. (2020). Making Online Learning Accessible for Deaf Students: A Guide for Disability Service. 1-11.



작은연구 좋은서울 20-11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

발행인 유기영

발행일 2021년 5월 18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